

## 논항의 배열 순서와 실현 양상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신 서 인

### The Order and the Representation of the Arguments

Seo-In Sh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요 약

본고에서는 동사 '주다'의 논항에 대해 논항의 배열 순서와 논항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항을 추정하는 원리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다' 동사의 경우 요구되는 세 개의 논항 중 두 개의 논항이 실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논항이 생략되는 경향은 GOL>AGT>THM 순이다. 논항들 간의 배열에는 지배적인 순서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AGT-GOL-THM]의 순서를 따른다. 모든 논항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실 많지 않으며 논항들간의 배열 순서와 실현 양상을 고려하면 기준이 되는 표지를 바탕으로 논항을 추정할 수 있다. 논항 추정 원리는 구문 분석에 있어서 어순 변이와 논항 생략을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서 론

한국어는 조사, 어미와 같은 교착소가 발달하여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모어 화자들이 자연스럽다고 느끼는 기본 어순이 분명히 있고, 이 기본 어순에서 벗어날 때에는 주제나 초점을 표시하는 등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sup>1,3)</sup>

본고에서는 말뭉치를 바탕으로 논항들간의 배열 순서를 조사하여 가장 빈번한 어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순 변이가 일어날 때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조사하도록 한다. 또, 논항이 실현될 때 어떤 조사와 결합하는지를 살펴보고 논항 포착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논항들간의 배열 순서와 실현 양상을 밝히는 것은 세 가지 면에서 한국어 구문 분석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구문 분석기를 구현할 때 어떤 문장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둘째, 구문 분석을 할 때 대상 문장에서 무엇을 단서로 하여 논항을 포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셋째, 구문 분석에서 어순 변이와 논항의 생략 현상을 어떤 전략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 연구대상 및 방법

본고의 조사 대상으로 삼은 말뭉치는 21세기 세종계획 결과물인 형태분석 말뭉치 550만 어절이다. 대부분 문어 텍스트이고, 소설의 대화 등 일부 구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동사 '주다'의 활용형 중 현재 시제 종결형인 '준다'를 포함하는 문장 265개를 추출하였다. 이들 문장의 요소에 대해 각 논항의 의미역을 표시하고 어떤 논항인지를 나타내는 표지-조사나 그밖의 형태-를 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논항의 실현 양상과 배열 순서를 조사하였다.

#### 논항의 실현

##### 1. 실현되는 논항의 수

'주다' 동사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이라는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동사이다. 각각의 의미역에 따라 행위

주는 AGT, 도착점은 GOL, 대상은 THM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개의 논항이 모든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sup>1</sup>

① (1) [AGT : 디지털 영상 기법은] 화면 구성에 무한한 힘을 발휘함으로써 [GOL : 영화 감독에게] [THM : 완벽한 통제권을] 준다.

(2) [AGT : 나는] [GOL : 말 뒤끝에] [THM : 힘을] 준다.

② (1) [AGT : 겸손하고 신중하게 서술하는 것이] [THM : 호감을] 준다.

(2) [GOL : 먼저 온 손님들에게] 차례로 [THM : 자리를] 준다.

③ (1) 이 독이 묻게 되면 [THM : 꼭 찢리거나 타는 듯한 아픔을] 준다.

(2) 해변으로 들어가는 골목을 블라치면 [THM : 마치 바람난 고삐리(고등학생)들이 숨어서 담배 빠는 곳 같은 느낌을] 준다.

④ “못 준다.”

①과 같이 3개의 논항이 모두 실현되는 문장은 77개였고, ②와 같이 2개의 논항이 실현되는 문장은 131개였다. ③과 같이 1개의 논항만이 실현되는 문장은 52개였고, ④와 같이 논항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도 5개 있었다(Fig. 1).

2. 논항 배열 순서

‘주다’ 동사에 대한 논항의 배열 순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Table 1).<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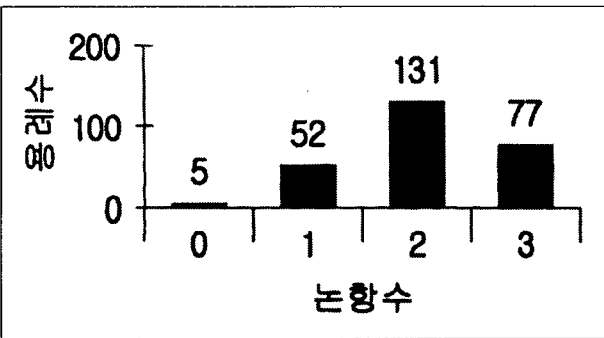


Fig. 1. 실현되는 논항의 수.

1 여기서 논항이 명시적으로 실현되었다고 한 것은 해당 의미역의 명사구가 ‘이/가, 을/를, 에, 에게’와 같은 격조사나 ‘은/는, 도, 만’과 같은 보조사와 결합하여 실현되는 경우와 조사 없이 명사구로 실현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맥락에서는 논항을 상정할 수 있으나 해당 절 내에서 표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그 논항이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2 여기서 THM-GOL-THM은 “사례는 나한테 반 준답니까?”와 같은 문장에서 발견된 것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논항이 앞에 나오고 그것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이 GOL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경우이다 (Table 1).

이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THM은 가장 필수적인 논항이다. THM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9문장뿐이었다. 그에 반해 AGT가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74개, GOL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은 168개였다.

⑤ 번역서들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원저의 관계대명사 구절을 역자는 줄표로써 처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THM : 줄표를 좀더 삼가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을] 준다.

AGT가 실현되지 않은 것은 ⑤에서와 같이 이전 문장이나 앞 절에서 다른 형태로 AGT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미 제시되어 동사를 포함한 해당 절에서는 주어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⑥ [AGT : 이 연극은] 동성 연애에 관한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THM : 짜릿한 감동을] 준다.

한편, GOL이 실현되지 않은 것은 ⑥에서와 같이 ‘영향을 주다’, ‘느낌을 주다’, ‘아쉬움을 주다’와 같은 구성에 대해 불특정 다수가 GOL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둘째, [AGT-GOL-THM]을 기본 어순으로 상정할 수 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어순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은 모어 화자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비율을 위의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다. AGT-GOL-THM, AGT-THM, GOL-THM, AGT-GOL, GOL, THM은 모두 [AGT-GOL-THM]이라는 관형에서 일부 논항이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체의 96.9%에 해당한다.

셋째, 모든 가능한 어순이 실제로도 같은 비율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세 개의 논항이 모두 실현되는 경우를 생각할 때에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개의 어순 관형을 상정할 수 있다.

⑦ (1) [AGT-GOL-THM]

Table 1. 논항 배열 순서

| 논항 배열       | 용례수 | 비율     |
|-------------|-----|--------|
| AGT-GOL-THM | 68  | 25.66  |
| AGT-THM-GOL | 7   | 2.64   |
| GOL-AGT-THM | 1   | 0.38   |
| THM-GOL-THM | 1   | 0.38   |
| AGT-THM     | 111 | 41.89  |
| GOL-THM     | 15  | 5.66   |
| AGT-GOL     | 2   | 0.75   |
| THM-AGT     | 2   | 0.75   |
| THM-GOL     | 1   | 0.38   |
| THM         | 50  | 18.87  |
| GOL         | 2   | 0.75   |
| ∅           | 5   | 1.89   |
| 합계          | 265 | 100.00 |

- (2) [AGT-THM-GOL]
- (3) [THM-AGT-GOL]
- (4) [THM-GOL-AGT]
- (5) [GOL-AGT-THM]
- (6) [GOL-THM-AGT]

그러나 실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7(1))의 [AGT-GOL-THM]이고, 그밖의 어순 관형 중에는 두 번째 논항과 세 번째 논항의 순서가 바뀐 (7(2))의 [AGT-THM-GOL]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다. AGT가 다른 논항보다 뒤에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 3. 논항 실현 양상

논항이 실현될 때 어떤 조사와 결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Table 2).<sup>3</sup>

AGT의 경우 보조사 ‘은/는’ 과 결합하는 경우가 146회로 가장 많았고, 격조사 ‘이/가’ 와 결합하는 경우가 33회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3회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바로 다음에 ‘역시’, ‘또한’ 과 같은 부사가 바로 나와 단서 역할을 해주었다.<sup>4</sup> ‘신부측에서’ 와 같이 부사격조사 ‘에서’ 가 단체 주어인 AGT를 나타내는 경

Table 2. AGT의 실현 양상

| 실현 양상          | 용례수 | 비율     |
|----------------|-----|--------|
| AGT_은/JX       | 146 | 76.44  |
| AGT_이/JKS      | 33  | 17.28  |
| AGT_도/JX       | 8   | 4.19   |
| AGT_∅ : 역시/MAG | 2   | 1.05   |
| AGT_∅ : 또한/MAG | 1   | 0.52   |
| AGT_에서/JKB     | 1   | 0.52   |
| 합계             | 191 | 100.00 |

Table 3. GOL의 실현 양상

| 실현 양상         | 용례수 | 비율     |
|---------------|-----|--------|
| GOL_에게/JKB    | 48  | 49.89  |
| GOL_에/JKB     | 38  | 39.18  |
| GOL_∅ : 데/NNB | 8   | 8.25   |
| GOL_을/JKO     | 1   | 1.03   |
| GOL_한테/JKB    | 1   | 1.03   |
| GOL_∅ : 대하여   | 1   | 1.03   |
| 합계            | 97  | 100.00 |

3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의 표지가 나타내는 바는 다음과 같다 : JKS-주격조사, JKO-목적격조사, JKB-부사격조사, JX-보조사, NNB-의존명사, MAG-일반부사. 이후의 Table에서 ‘∅’로 나타낸 것은 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다. 조사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어떤 논항 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는 형태가 있으면 ‘:’ 다음에 표시하였다.

4 ‘신부측에서’와 같이 부사격조사 ‘에서’가 단체 주어인 AGT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다.

우도 있었다(Table 3).

GOL의 경우 부사격 조사 ‘에게’ 와 결합하는 경우가 48회, ‘에’ 와 결합하는 경우가 38회였으며, ‘한테’ 와 결합하는 경우가 1회 있었다. 격조사가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의존명사 ‘데’ 다음에 ‘에’ 가 생략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8회 있었다. 이밖에 조사가 결합하지는 않지만 ‘~에 대하여’ 에 해당하는 요소가 GOL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sup>5</sup> GOL은 이렇게 대개의 경우 확실한 표지를 가지지만 ‘을’ 이 결합하는 경우처럼 다른 요소를 본 후 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Table 4).

THM의 경우 목적격 조사 ‘을’ 과 결합하는 경우가 239회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밖에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7회 있었으며 ‘도, 마저, 은, 만’ 과 같은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게 격조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논항인지를 금방 알 수 있지만,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나 조사가 쓰이지 않는 경우는 다른 정보에 근거하여 격을 결정해야 한다.

## 논항의 추정

실제 말뭉치에서 논항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면 모든 논항에 대해 그것을 추정할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대개의 경우, 한두 개의 논항에 대해 보조사가 실현되거나 조사가 생략되므로 일정한 논항 추정 원리를 적용하면 논항을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항 추정 원리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 1. 논항이 세 개인 경우

- 1) 모두 격조사가 쓰인 경우 : 세 논항에 대해 모두 격조사가 쓰이는 경우 조사가 부여하는 대로 격을 결정하면 된다.
- 2) 격조사가 둘 쓰인 경우 : 격조사가 채워지지 않은 것에

Table 4. THM의 실현 양상

| 실현 양상     | 용례수 | 비율     |
|-----------|-----|--------|
| THM_을/JKO | 240 | 93.39  |
| THM_∅     | 7   | 2.72   |
| THM_도/JX  | 5   | 1.95   |
| THM_마저/JX | 3   | 1.17   |
| THM_은/JX  | 1   | 0.39   |
| THM_만/JX  | 1   | 0.39   |
| 합계        | 257 | 100.00 |

5 “[GOL : 이런 시적 높이가 산문 소설에서 과연 얼마나 지탱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AGT : 엘리엇의 시극론은] [THM : 일정한 해명을 준다.]와 같은 예가 보인다.

해당 격을 할당하되 순서를 고려한다. AGT는 맨 앞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은/는’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도록 한다.

3) 격조사가 하나 쓰인 경우 : 보조사가 사용되거나 조사가 생략된 논항들에 대해 격을 부여할 때 배열 순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AGT-GOL-THM]이 가장 빈번한 어순이므로 이 경우부터 생각하도록 한다.

4) 이밖에 조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이더라도 ‘데’나 ‘~에 대하여’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경우 논항 포착의 단서로 이용하도록 한다(Table 5).

**2. 논항이 두 개인 경우**

1) 모두 격조사가 쓰인 경우 : 두 논항에 대해 모두 격조사가 쓰인 경우 조사가 부여하는 대로 격을 결정하면 된다.

2) 격조사가 하나 쓰인 경우 : 논항이 둘 있는 경우도 기본 어순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격조사가 쓰인 논항을 중심으로 기본 어순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논항을 추정한다. 순서에 의거할 때 둘 이상의 논항으로 추정이 가능하면, 어떤 논항 쌍이 더 빈번한지 고려하도록 한다. 예컨대 두 개의 논항이 ‘도-을’과 같은 표지로 실현되었다면 조사 ‘도’를 포함한 논항은 [AGT-GOL-THM]의 기본 어순에 비추어 생각해볼 때 AGT일 수도 있고 GOL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GT-THM]이 [GOL-THM]보다 더 빈번하므로 우선 [AGT-THM]의 논항이 실현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3) 격조사가 쓰이지 않은 경우 : ‘은-마저’, ‘은-만’, ‘은-도’와 같이 두 개의 논항에 대해 모두 격조사가 쓰이지 않

은 경우가 있다. 이때도 어떠한 논항 배열이 가장 빈번한지를 고려하고 ‘은/는’이 주로 AGT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어렵지 않게 격을 추정할 수 있다(Table 6).

**3. 논항이 한 개인 경우**

1) 격조사가 쓰인 경우 : 조사가 부여하는 대로 격을 결정하면 된다.

2) 격조사가 쓰이지 않은 경우 : ‘주다’를 포함한 문장에서 하나의 논항만 나타날 때 AGT만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THM일 경우가 가장 많다. 또 GOL은 대개 격조사나 특정 형태로 실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가 쓰이지 않거나 보조사가 쓰인 경우 우선 THM으로 추정할 수 있다(Table 7).

**결론**

본고에서는 동사 ‘주다’의 논항에 대해 논항의 배열 순서

**Table 5.** 논항 세 개의 실현 양상

| 실현 양상       |               |            | 용례수 | 비율     |
|-------------|---------------|------------|-----|--------|
| AGT_이/JKS   | GOL_에게/JKB    | THM_을/JKO  | 2   | 2.60   |
| AGT_이/JKS   | GOL_에/JKB     | THM_을/JKO  | 1   | 1.30   |
| AGT_은/JX    | GOL_에게/JKB    | THM_을/JKO  | 23  | 29.87  |
| AGT_은/JX    | GOL_에/JKB     | THM_을/JKO  | 29  | 37.66  |
| AGT_도/JX    | GOL_에게/JKB    | THM_을/JKO  | 3   | 3.90   |
| AGT_도/JX    | GOL_에/JKB     | THM_을/JKO  | 1   | 1.30   |
| AGT_에서/JKB  | GOL_에게/JKB    | THM_을/JKO  | 1   | 1.30   |
| AGT_은/JX    | GOL_∅ : 데/NNB | THM_을/JKO  | 6   | 7.79   |
| AGT_도/JX    | GOL_∅ : 데/NNB | THM_을/JKO  | 1   | 1.30   |
| AGT_은/JX    | GOL_에게/JKB    | THM_도/JX   | 1   | 1.30   |
| AGT_이/JKS   | THM_을/JKO     | GOL_에게/JKB | 5   | 6.49   |
| AGT_은/JX    | THM_을/JKO     | GOL_에게/JKB | 2   | 2.60   |
| GOL_∅ : 대하여 | AGT_은/JX      | THM_을/JKO  | 1   | 1.30   |
| THM_은/JX    | GOL_한테/JKB    | THM_∅      | 1   | 1.30   |
| 합계          |               |            | 77  | 100.00 |

**Table 6.** 논항 두 개의 실현 양상

| 실현 양상          |            | 용례수 | 비율     |
|----------------|------------|-----|--------|
| AGT_이/JKS      | THM_을/JKO  | 23  | 17.56  |
| AGT_은/JX       | THM_을/JKO  | 77  | 58.78  |
| AGT_도/JX       | THM_을/JKO  | 3   | 2.29   |
| AGT_∅ : 역시/MAG | THM_을/JKO  | 2   | 1.53   |
| AGT_∅ : 또한/MAG | THM_을/JKO  | 1   | 0.76   |
| AGT_은/JX       | THM_마저/JX  | 3   | 2.29   |
| AGT_은/JX       | THM_만/JX   | 1   | 0.76   |
| AGT_은/JX       | THM_도/JX   | 1   | 0.76   |
| GOL_에게/JKB     | THM_을/JKO  | 7   | 5.34   |
| GOL_에/JKB      | THM_을/JKO  | 6   | 4.58   |
| GOL_∅ : 데/NNB  | THM_을/JKO  | 1   | 0.76   |
| GOL_에/JKB      | THM_∅      | 1   | 0.76   |
| AGT_은/JX       | GOL_에게/JKB | 1   | 0.76   |
| AGT_은/JX       | GOL_을/JKO  | 1   | 0.76   |
| THM_을/JKO      | AGT_이/JKS  | 1   | 0.76   |
| THM_도/JX       | AGT_이/JKS  | 1   | 0.76   |
| THM_을/JKO      | GOL_에게/JKB | 1   | 0.76   |
| 합계             |            | 131 | 100.00 |

**Table 7.** 논항 한 개의 실현 양상

| 실현 양상      | 용례수 | 비율    |        |
|------------|-----|-------|--------|
| THM_을/JKO  | 43  | 82.69 |        |
| THM_∅      | 5   | 9.62  |        |
| THM_도/JX   | 2   | 3.85  |        |
| GOL_에게/JKB | 2   | 3.85  |        |
| 합계         |     | 52    | 100.00 |

와 논항의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항을 추정하는 원리를 도출하였다.

‘주다’ 동사의 경우 요구되는 세 개의 논항 중 두 개의 논항이 실현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논항이 생략되는 경향은 GOL>AGT>THM 순이었다. 논항들 간의 배열에는 지배적인 순서가 있었는데, 대개의 경우 [AGT-GOL-THM]의 순서를 따랐다. AGT는 조사 ‘은/는’, GOL은 조사 ‘에게, 에’, THM은 조사 ‘을’ 과 결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분석 대상 문장에 대하여 모든 논항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사실 많지 않으며 논항들간의 배열 순서와 실현 양상을 고려하면 기준이 되는 표지를 바탕으로 논항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논항 추정 원리는 구문 분석에 있어서

어순 변이와 논항 생략을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박철우(1998) :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박사학위논문
- 2) 송기중(1985) : “문장구조”. 박갑수 외. 현대국어문장의 실태 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3) 임홍빈(2002) : 한국어 구문분석 방법론. 한국문화사
- 4) 장석진(1995) : 정보기반 한국어 문법. 한신문화사
- 5) 채 완(1986) : 국어 어순의 연구-반복 및 병렬을 중심으로. 탑출판사
- 6) Heylen, Kris & Dirk Speelman(2003) : “A corpus-based analysis of word order variation : The order of verb arguments in the German middle field” *Corpus Linguistics*
- 7) Somers HL(1987) : *Valency and case in computational linguistics*. Edinburgh University Press.